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지자체, 폭염 대비 복지사각지대 챙겨야”

“도움 손길 필요한 소외계층 지자체가 보살펴야”

순천시, 맞춤형복지팀 중심 복지사각지대 관리

하절기 폭염을 대비한 자치단체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

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위기가구,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간병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그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

한 저소득 빈곤계층 등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폭염이 예상되는 8월 말까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피서가 불가능해 예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선 자치단체 등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 대한 폭염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 순천시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사각지대 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지원,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은 통합사례관

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주민들이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주위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정말로 상상 초월합니다”...文 대통령, 사회적경제 기업에 연신 ‘감탄’

태블릿 PC로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에게 “청와대” 자폐인이 만든 텀블러 두레 상품권 10만원에 구매 폐식용유 5ml로 전구 한 시간 설명에 “대단합니다”

5일 대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서비스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찾은 곳은 (주)코엑터스 부스였다.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들이 태블릿 PC를 통해 승객과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다. 청각장애인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개발했다.

기사 이대호씨의 택시에 탑승한 문 대통령은 승객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청와대’라고 목적지를 적었다. 택시에는 승객용과 기사용 태블릿 PC를 각각 설치했다. 그러자 기사용 태블릿 PC로 해당 목적지가 전송됐다.

청각장애인 기사들을 위해 승객이 태블릿 PC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기사에게 문자로 전달되는 기능도 내장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고속도로로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또 “응원합니다” 메시지를 통해 기사들

격려했다.

자폐인의 재능 재할을 실천하는 디자인 회사인 (주)오티스타 부스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작품 중 텀블러를 집어 올린 후 “디자인이 정말 좋다”고 했다. 그러곤 사회적경제 박람회 내 화폐인 ‘두레’를 꺼내 1만원 상품권 10장, 10만원을 건네 구매했다.

폐식용유를 활용해 전구를 작동시키는 기술을 갖춘 (주)루미르 부스도 찾았다.

문 대통령은 폐식용유에 불이 붙자 열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전구가 켜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전 세계 많은 곳에 빛을 공급해줄 수 있는 건가?”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캠핑 등 야외활동할 때 (이용)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식용유 5ml에 한 시간 정도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설명을 듣더니 “아 대단합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라며 놀라움을 표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관을 방문하여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와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에 탑승하여 서비스 체험을 하고 있다.

했다.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식재료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인 (주)크리에이티브 터스랩 부스를 찾은 문 대통령은 7살 아이들과 슈가클레이로 만든 돼지고기를 컵케익에 붙이며 케이크를 만들었다. 아이 중 한명은 문 대통령에게 완성한 컵케익을 종이 상자에 담아 선

물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지역, 현장의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7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 생태

계 구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구어겠다는 목표에서 나왔다.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어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구상이다.

뉴시스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내일 광주시의회서 ‘장애여성인권운동 20년, 다시 시작이다 Begin Again’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와 광주매일신문과 함께하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여성인권운동 20년, 다시 시작이다 Begin Again’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변화의 흐름을 성찰하고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운동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장애여성인권운동 20년, 다시 시

작이다 Begin Again’은 광주여성장애인연대의 20년의 여정과 성과란 주제로 이순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의 발제, 서미정 전 시의원의 토론과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이후 자립지원방향을 주제로 하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셋터 김

지숙원장의 발제, 서미화 목포유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토론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20년 역사 속에 여성장애인 운동이란 주제로 문예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의 발제, 한윤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1999년 여성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연대성과 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창립된 광주여성장애인연대의 정체성과 지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앞으로의 활동 및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